|  |  |  |  |  |
| --- | --- | --- | --- | --- |
| **<2025 KAISTian 실패 에세이 공모전> 참가신청 및 활용 동의서** | | | | |
| **참가자 정보 (지원분야: ■ 기획주제 □ 자유주제)** | | | | |
| **성명** | **소속학과** | **학번** | **핸드폰** | **이메일** |
| 김현준 | 전산학부 | 20230206 | 010-9417-1845 | hyunjun1121@kaist.ac.kr |
| 개인정보  제공/이용 | **■** 동의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 |
| **※ 유의사항**   응모작품은 타 공모전에 출품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 타 공모전 출품작, 표절 작품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수상 후 이런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일체 환수함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 3자의 초상권, 지적재산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수상작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실패연구소에 출품된 모든 작품은 실패연구의 기초자료 및 공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   상금지급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임 | | | | |
| **위와 같이 <2025 KAISTian 실패에세이 공모전> 참가를 신청하며, 제출한 작품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5. 07. 30.**  **신청자 : 김현준 (인)** | | | | |

**[양식 1] 에세이 공모 신청양식**

|  |
| --- |
| **제목** |
| **끊어진 줄, 다시 잇는 매듭** |

※ 작성시 유의사항

- 맑은고딕 (서체크기 – 11point)으로 장평 및 자간 변경하지 마시고 작성해주세요

- 원고분량은 3pages내외 (최대 5pages 이내)로 이미지를 포함해도 됩니다.

- 참가신청서와 원고를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여 [caf@kaist.ac.kr](mailto:caf@kaist.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메일제목은 [에세이공모] 소속-이름 으로 통일)

초등학교 시절, 제게 학교란 늘 낯선 환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암 투병으로 가족은 몇 차례나 이사를 다녀야 했고, 전학을 거듭할 때마다 새로운 교실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수줍음 많던 아이였던 저는 전학 갈 때마다 쉬는 시간 혼자 책만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두렵고 어려웠습니다. 외톨이 같은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우연히 참여한 방과후 활동에서 테니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맨발로 뛰어다니며 공을 쫓던 첫 수업 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마음껏 웃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라켓을 주고받으며 이름도 모르던 아이와 금세 친해졌고, 서로의 실수를 보며 깔깔 웃는 순간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땀에 젖은 저를 보고 “다음에 또 같이 하자!”며 손을 내밀던 그 친구의 한마디는, 새로운 학교에서 느낀 첫 환대와 연결의 순간이었습니다. 고립되었던 제게 테니스는 그렇게 세상과 맞닿는 창문이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놀이처럼 시작했지만, 테니스는 곧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코트 위에서 뛰는 동안만큼은 아버지의 병환에 대한 걱정도, 전학 온 아이의 외로움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갈 때쯤 저는 지역 대회에 나갈 만큼 실력이 늘었고, 테니스 선수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훈련하는 친구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쌓아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힘든 체력 훈련 뒤에 함께 마시는 시원한 물 한 모금, 버스 안에서 서로 기대 잠들 만큼 지친 날에도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합숙훈련을 할 때면, 서로가 서로의 형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외롭던 제게 찾아온 첫 공동체가 바로 이 테니스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선수 생활은 한순간에 끝을 맞았습니다. 훈련 중 어느 날, 저희 팀의 코치가 선수들을 부당하게 혹사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용기를 내어 그 부조리한 현실을 폭로하셨지만, 그 대가로 제가 속했던 테니스 팀은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6년간 이어온 선수 생활을 한 사건을 계기로 갑작스럽게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치는 징계를 받았지만, 어린 마음에 저는 오히려 제가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함께 땀 흘릴 코트도 같이 웃을 친구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친하던 테니스 친구들마저도 우리 가족이 팀을 해체시켰다며 하나둘 제 곁을 떠났습니다. 분명 잘못은 코치에게 있었지만, 사태가 커지자 친구들은 제 부모님의 행동을 원망하는 눈치였습니다. 오랫동안 형제처럼 지내온 동료들의 외면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학교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지나치는 옛 친구들을 뒤로하고, 빈 운동장을 혼자 걸을 때의 상실감과 배신감을 저는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하루아침에 꿈과 우정이 함께 무너진 그 시기,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테니스 라켓을 놓은 뒤부터 학교에서는 더욱 말없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운동부라 수업을 자주 빠졌지만, 이제는 운동도 친구도 잃고 남은 것이라곤 공부뿐인 형편이었습니다. 방과 후에도 곧장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잃어버린 꿈을 애써 잊으려는 듯,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성공으로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를 공부에 몰아붙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다'는 다짐은 절박한 생존 전략처럼 제 마음속에 자리잡았습니다. 친구와 어울릴 바에는 한 문제를 더 풀겠다는 각오로 매일 밤 늦게까지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때, 예기치 않게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모두가 집에 머물러야 했던 그 시절, 저에겐 오히려 세상과 단절된 환경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온종일 컴퓨터 화면 앞에서 혼자 수업을 듣고 자습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고독한 시간을 오히려 기회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 교실 소음 대신 들려오는 자신의 숨소리만을 벗삼아, 저는 오로지 목표 하나에 매달렸습니다. 그 목표는 전교 1등. 한때 코트 위 1등을 꿈꾸던 제가 이제는 성적 1등을 향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공부 마라톤 속에서, 외로움과 피로가 몰려올 때면 “내가 반드시 이겨내고 만다”고 스스로를 벽, 실내, 의류, 선반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독였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성적표에 1등이라는 두 글자가 찍혔을 때, 저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밤잠 줄여가며 문제집을 풀던 제 모습이 떠올라 벅찬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제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1등이었으니까요.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수고했다”며 제 손을 잡아주실 때, 저는 웃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이 소식을 전할 아버지가 곁에 안 계신다는 사실에 한동안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신 아버지... 그때 제게 아버지는 더 크게 성공해서 당당해지라고 말씀해주시는 듯했습니다. 성적표를 가만히 쥔 채,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 한쪽이 환히 밝아오는 것을 느끼며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늘 강조하시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라”는 가르침이 제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지요. 저는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길을 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투병 중이던 아버지께서는 군대 내의 폐쇄적인 문화와 악습에 대해 우려를 표하시며 “나라를 이끌 장교들이 바뀌어야 군대가 바뀐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군 조직을 혁신하는 리더야말로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긴 저는 육군사관학교 진학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운동을 그만둔 뒤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것도, 돌이켜 보면 아버지의 그 한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류, 사람, 야외, 건물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되어 입교식에 섰던 날, 저는 새로운 각오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의 힘겨운 5주를 버티며 동기들과 동고동락하던 시간들은 다시 한 번 끈끈한 유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구보를 하다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 등에 손을 얹어 “할 수 있다” 격려해주던 전우들, 서로를 의지하던 순간들 덕분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땀흘린 동료들과 국군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부푼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앞으로 이 군대를, 나아가 사회를 바꿔 나가겠지.’* 저마다 가슴에 뜨거운 이상을 품은 청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입학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차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꿈꾸는 방식으로 이 거대한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교육생의 신분으로 생활하다 보니 어느새 기존의 관행에 저도 모르게 적응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신입생으로서 조직 문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상을 외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입교 전 제가 그리던 혁신적인 리더가 아니라 그저 학교의 색에 물들어가는 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매일 밤 뒤척이며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견디기 힘든 육체적 훈련보다도, 신념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갈등하는 일이 저를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힘들게 내린 결정 끝에 육군사관학교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꿈꾸던 길에서 내려선다는 것, 그것도 스스로 선택한 길을 포기한다는 것은 두 번째 큰 좌절이었습니다. 자퇴를 결심하고 소대장님께 면담을 요청드리던 날 아침, 저는 구두 발끝만 내려다본 채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면담실에 들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퇴교 의사를 밝히자, 소대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네 선택을 존중한다”고 담담히 말해주셨습니다. 그 한 마디에 저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 달 간 쌓아온 동료들과의 정이며, 미래에 대한 기대이며,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듯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입교식에서 함께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자던 전우들에게 이별을 고하는 순간, 저는 또다시 관계의 단절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학교를 떠나던 날, 정문 앞에서 몇몇 가까운 동기들과 마지막 거수경례를 하며 포옹할 때, 우리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꼭 네 뜻 펼쳐라” 손을 흔들어주던 전우들의 모습이 점점 멀어질 때, 제 안에서는 한 시대가 끝났다는 허망함과 함께 또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깊은 상실감이 찾아왔습니다.

캄캄한 암흑 속을 걷는 듯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낙담한 채 집에 틀어박혀 지내던 제게, 끝내 이루지 못한 꿈들은 모두 무의미한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도 그만두었겠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내면에서 다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육사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제 머릿속에 아버지의 한탄 섞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발로 걸어서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말기 암으로 거동이 어려워지신 아버지는 생전에 휠체어에 의지한 채 창밖을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유롭게 바깥을 돌아다니실 수 있도록 가상현실 속 세상을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제 한계에 부딪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그 순간, 이 작은 아이디어는 제 가슴속에서 새로운 불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움직일 수 없어도 VR기술을 통해 세상을 누비게 할 수 있다면, 꼭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많은 사람들에게 창문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가슴의 뜀박질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곧장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KAIST에 진학해서 VR 연구자가 되자. 과학기술을 통해 사람들을 이어주고 돕겠다는 다짐에 오랜만에 눈이 빛났습니다. 마치 꺾였던 나뭇가지에 돋아난 새 순처럼, 제 인생에 다시 한번 희망의 새싹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길로 입시 설명회를 찾아보고 진로를 수정하며, 오직 KAIST에 가겠다는 일념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부모님도 제 결정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실패와 좌절로 가득했던 지난날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제 모습에 부모님은 오히려 안도하는 듯했습니다. 제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가족에게는 작은 기적 같았습니다.

다행히 KAIST에 합격한 저는 2023년, 새내기가 되어 캠퍼스에 발을 들였습니다. 푸른 잔디와 활기찬 동아리 홍보 소리로 가득한 대학 캠퍼스는 마치 또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잘 해낼 수 있을까?” 낯설고 뛰어난 학생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기도 했지요. 그때마다 가슴 속에서 아버지의 격려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 영향력이 긍정적이길 바란다.’* 낯선 연구 분야와 어려운 전공 수업에 부딪힐 때면, 아버지의 말을 되뇌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KAIST에서의 생활은 제게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입학 후 좋은 친구들과 멘토들을 만나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타인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부 2학년 겨울, 세 명의 친구와 팀을 이루어 도전했던 데이터사이언스 경진대회 경험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희 팀은 금융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요약하는 AI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각자 전문지식도 부족한 저학년들이었지만, 부족한 부분은 서로 가르쳐주고 힘을 모아 마침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최종 결과에서 금상 수상자로 우리 팀 이름이 불렸을 때, 무대로 나가며 네 손을 움켜쥐던 순간의 벅찬 감동은 제 인생의 새로운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팀의 연구는 운좋게 ICLR 국제학술대회 workshop 논문으로까지 이어졌고, 어린 학부생들이 만들어낸 성과에 많은 분들이 축하를 보내주셨습니다. “논문 경험 없는 학부 1, 2학년 팀이 국제 학술대회에 논문을 통과시켰다”는 교내 기사가 나왔을 때는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은, 이 모든 경험을 함께 한 동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각자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도전을, 연결의 힘으로 해냈다는 깨달음은 저에게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텍스트, 의류, 사람, 표지판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의류, 신발류, 사람, 슈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제 삶의 가장 외롭고 어두웠던 순간들이 오히려 새로운 연결의 시작이 되어주었음을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 하나 없이 지내던 소년은 테니스를 통해 처음으로 세상과 손을 잡았고, 선수로서의 좌절과 단절은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일군 성공은 제게 자신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함께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군대에서의 또 다른 실패는 비록 큰 상처로 남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저는 내가 진정 가고 싶은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한동안 방황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제 삶의 이정표가 되어 새로운 꿈으로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닐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저는 제가 받은 온기와 지지를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인연이 피어날 토양이 마련되고, 그 인연이 또 다른 도전의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제 삶이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언젠가 저와 같은 외로움에 빠진 누군가 제게 손을 내민다면, 저는 기꺼이 잡아줄 것입니다. 단절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연결의 소중함 또한 누구보다 깊이 믿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비록 작은 메아리에 불과할지라도, 관계의 단절과 회복을 겪는 이들에게 다시 이어질 희망의 가능성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고립의 터널 끝에서도 반드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빛이 기다리고 있음을, 제 삶은 계속해서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